OECD 자본스톡 측정 매뉴얼 해설 7

실측조사 및 기타 직접추계 방법

자본스톡 측정 방법 중의 하나인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은 측정비용이 적게 들고, 적용이 간편하여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재고법 이외에도 자본스톡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실측 조사 등과 같이 직접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업회계 자료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세를 위하여 기업들에게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 자료에는 기업의 자본스톡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의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기업회계 자료는 법인기업의 경우에만 입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법인기업 등에서 소유하는 자본스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회계의 자본자산과 국민계정의 유형고정자산이 포괄범위나 특정 비용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셋째, 자산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기업 회계자료는 역사적가격으로 평가가 이루

어지는 반면, 국민계정에서는 기준년도가격 혹은 당해연도가격으로 자산 평가가 이루어진다. 넷째, 기업마다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기업회계 자료들 사이의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고정자산대차대조표(Balance of Fixed Asset)

고정자산대차대조표는 동유럽의 계획경제 국가들이 매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표이다. 동 통계표는 국영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고정자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연초에는 고정자산스톡, 연중에는 자산취득을 보고하며, 연말에는 고정자산의 폐기와 고정자산스톡의 가액을 보고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자본스톡을 측정하는데 동 자료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제전환국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대상의 포괄범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영기업의 경우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본스톡에 관한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작성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둘째, 체제전환국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통계기관들이 자산재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재평가 계수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즉, 고정자산대차대조표에서 당해연도 재조달가격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스톡 추계의 신뢰도 또한 매우 낮다. 셋째, 국영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중공업 설비 및 장비들이 고정자산대차대조표에는 역사적 원가로 기록되어 있다.

3. 시장경제 국가의 자본통계 조사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통적으로 통계조사를 통하여 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보통 국부조사(National Wealth Survey)라고 하는데, 동 조사의 경우 고정자산 이외에도 재고자산과 순해외금융자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부조사는 조사대상에 일반정부, 공기업, 법인 및 비법인기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동 조사는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비, 선박, 자동차, 기타 운수장비, 공구 및 가구와 건설중인 자산(재공품) 등의 자산형태별로 조사되며, 최근 조사에서는 약 25,000개의 법인기업, 60,000개의 비법인기업과 5,000개의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조사되었고, 정부부문은 포괄적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부조사는 시간 및 비용 문제로 인하여 1997년도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후의 자본스톡은 간접추계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계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자본스톡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매년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되,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을 매년 교체하는 부분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업종 내 조사부문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5년마다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 내의

모든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네덜란드 통계청은 이를 기준년순환접속법(A Rolling Benchmark Method)이라고 부른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이외에도 자본형성과 자산의 처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동 조사결과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시점 사이의 스톡 추계치를 얻기 위해 이용된다. 이러한 추계방법은 내용년수나 폐기함수에 대한 가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영구재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조사 방식에 의한 자본스톡 추계 결과의 신뢰도는 조사방법의 정교함과 응답자의 정보제공 능력에 달려있는데, 응답자의 정보제공 능력은 회계기록의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고정자산 회계시뮬레이션 모델(FAASM : Fixed Asset Accounting Simulation Model)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스톡 추계방법도 있다. 동 추계 방법은 캐나다에서 개발한 것으로 역사적 가격으로 평가된 자본스톡과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한 기업의 기록을 이용하여 내용년수를 추계한다. 그 다음 총고정자본형성을 당해연도가격과 기준년도가격으로 재평가하고 추정된 내용년수를 매년도의 자본형성에 적용하여 총자본스톡을 추계하며 추정 내용년수를 이용하여 고정자본소모과 순자본스톡을 산출한다. 고정자산 회계 시뮬레이션 모델은 캐나다의 경우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4. 행정기록

대부분 국가들은 일부 유형자산에 대한 행정기록을 가지고 있다. 행정기록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동차나 주거용 건물 같은 자산들의 소유나 사용에 대한 과세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행정기록은 자산의 가액이 아닌 수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량이외에 자산의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 동 기록을 이용하여 자산의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산의 경우에는 특정년도의 행정기록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건물 스톡에 대한 세부정보는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연도에만 입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서스 실시 중간년도의 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을 사용하거나 신규건축 및 철거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기록을 이용한 자본스톡 추계 결과는 영구재고법 등을 이용한 추계결과보다 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경제통계국 국민대차대조표반 송병호 조사역>